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만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부가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본필포: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은 문'은 이에게 담담자 양 ● 인터넷: www.hann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97호 현대불교
2010년 8월 18일(음 7월 9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이 판시판으로 놓는 마음이 라이저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싶은데...

문) 스님께서는 생활 속에서의 참선을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실천이 안됩니다. 제가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우리가 먹으면 배설하고 먹으면 배설하고 그러죠? 그리고 땅을 걸어가다가 앞뒤러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대신 죽어 주는 사람도 없을 거고, 자 주는 사람도 없고 먹어 주는 사람도 없고, 아파 주는 사람도 없고 병 낫추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몸뚱이 자체를 끌고 다니는 마음의 주인, 그 주인의 핵심을 꼭 믿고 '오로지 거기서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져야 해요. 그렇게 진실되게 이끌어 준다는 거를 믿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병도 낫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애고도 생길 때가 오고, 어떤 때는 장사도 안될 때가 오고 어떤 편 몸도 짜뿌드드하게끔 될 때도 있고, 기정이 의합하지 않을 때도 있고 별 문제가 다 생기는 거를 그저 오는 대로, 생기는 대로 거기가 맡겨 놓고 '와이고! 이 마음의 주인공, 당신밖에 없어. 이 영원한 천 구아! 당신만이 나를 이끌어 주고 이 병고나 애고를 없애 줄 수 있어!' 하고 거기 바라 이 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에 모든 것을 놓고, 그 놓고 나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관찰하고 이러한 게 참선이예요. 그렇게 놓고 관찰하고 지켜보는 게, 그것이 어떻게 지속되느냐? 이렇게 좌선을 하고 앉아 있는 것만이 참선이 아니예요. 그건 좌선이지, 그러니까 모든 게, 와선이나 입선, 남는 거나 앉는 거나 서는 거나 일하는 거나 모든 게 한데 합쳐지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써 어떻게 작용을 할 때나 내기 마음은 그렇게 기질 수 있고 여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참선이예요.

그렇하다 보면 내 마음 자체가 지꾸 실험이 되면서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꾸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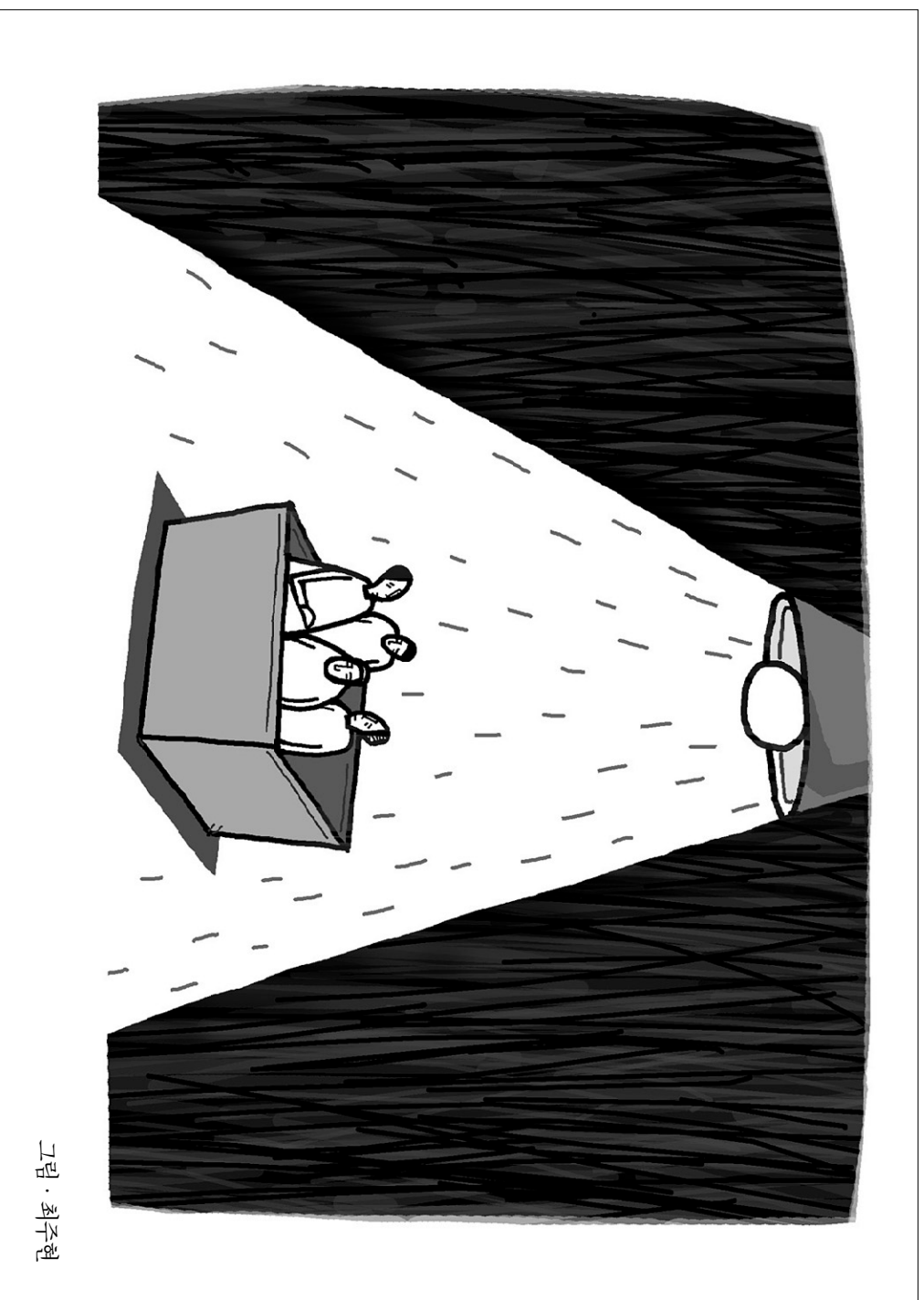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험이 되고 그렇게 체험을 함으로써 바로 진짜로 믿게 되죠. 그때는, 그럼으로써 지기 참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문) 스님, 세상이 왜 이미 뜻대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서 그동안 식당 일을 조금 거들면서 열심히 모아 놓은 돈이 다 거덜이 났습니다. 앞으로 애들이랑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답) 세상은 환상이지만 또 환상이 아닌 것이 세상이지요. 그래서 살다 보면 눈물나는 일들이 그렇게 내게 닥치게 되고 그렇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내 팔자구나 하고 거기서 주저않아 버리면 앞으로 또 그 바퀴를 널

어야 하니 아쉽니까. 그러니 그건 정신이 문제예요. 아니, 오늘 살다 내일 죽으면 어떻게 모래 죽으면 어떻게? 안 그래요? 한 번 죽기는 마친거지네 누구 말마따나 이판사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살 양으로 바등바등하기 때문에 죽는 법이예요. 이 돈도 쫓아가려고 바등바등하기 때문에 일어나가는 거지 가만 두고 그냥 저절로 오게끔 해 놓으면 저절로 '아, 이 집이 들어가면 구수하겠구나.' 이런곤 들어오는 거예요. 쫓아다니니만 안 와요. 불들리지 않

아요. 이 마음의 묘법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광대무변한 겁니다. 이 마음의 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광대무변하고 얼마나 묘한지 여러분도 지꾸지꾸 경험을 쌓으세요. 왜

나하면 과거에 지은 업보가 지금 없어질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모든 것은 주인공 자리에서 오는 거니까 거기가 맡겨 놓고 죽든 살든, 뭐 죽지 않는다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육신이 망기겠다가도 다시 소생할 수가 있고 더 안 살려고 그러니까 더 살아지죠. 더 살 양으로 바등거리면 더 안 살아져요.

포 이렇게 살 양으로 하면 더 안 살아진다더라 이러고 또 생각을 내진 마세요. 그냥 천연적으로 그렇게 돼야지, 그냥 이판사판 놓는 그 마음이라이저 이거는 생각을 해 거지고 사랑으로 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든 살든 주인공만 불들고 봐 보세요. 죽으란 법은 없니까요.

환자에게 관법을 알려 주나...
문) 스님, 저는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하는 공부를 하고부터 환자들에게 관하는 것을 알려 주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어서 활용하는 환자는 회복이 매우 빠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참 묘한 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 네, 아주 잘하셨다고 봅니다. 게다가 그렇게 알려 주지 않아도 언결이, 그 무뚱의 언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나와 돌이 아닌 까닭에 될 수 있어.' 하고 관해 보세요. 그것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사람이 병원에도 못 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한테 찾아와서 어린애가 거꾸로 썼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아어, 병원 의사가 오진을 한 모양이지, 뭘.' 그러면서 관하려고 알려 줍니다. 그러면 그 이틀날 와서 하는 소리가 "병원에 가보니까 거꾸로 썼던 게 바로 참대요." 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만이 할 수 있고, 누가 대신 행복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뻗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지 그냥 자신을 믿고 밀고 넘어가는 겁니다. 소 떼가 강을 건너는데 약어들이 무시급득시급하니까 앞서, 죽 말하자면 소 떼의 왕초가 먼저 건너가야만 소 떼도 들어갈 텐데, 물에 들어서질 않으면 못 들어가죠. 뭐로 물러서죠. 근데 왕초가 딱 물에 들어가니까, 그냥 소 떼가 전부 다 그냥 물에 들어서서 그 저 약어 전등이고 머리고 다 밀고 그냥 비호갈이 건넌답니다.

그와 같이 내 마음도 어떠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에는 '아어구, 이런 건 도저히 못하겠고 이걸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되고...' 이런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많고 안 되는 게 많고 그러거든요. 그것만이 아니예요. 조그만 걸 거지고도 그래요. 그리고 싸우고요. 그런데 거기다 놓고 일임하고 관하면 편안하게, 상글상글 웃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려!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실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語 -



마음을 밝히는 가리침

